

설 특집 인터뷰 - 김관영 도지사

# 도전 없이는 변화도 없다

Q. 전북이 2024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2024년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진 해였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기반이 강화됐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30개 기업을 유치하며 첨단바이오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산업에서도 전북형 디지털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전통산업(농생명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전북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이차전지 산업은 전북의 핵심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이차전지 산업은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새만금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

충하고, 카이스트 이차전지 대학원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재활용의 허브로 도약할 것입니다.

Q. 바이오산업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분야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 바이오산업은 전북의 강점인 그린 바이오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전북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육성에 눈을 뜨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이차전지, 바이오, 디지털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룬 전북은 이제 2025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한 해 전북의 미래 위한 토대 다져 올해,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해로

Q. 2025년은 전북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우선, 도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앞으로 150개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R&D 지원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소재 의료기기센터와 메카노바이오 센터를 통해 첨단 의료기술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따뜻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전북이 더욱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차전지, 바이오, 디지털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전북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도정의 목표는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변화와 도전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북은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이 있다면, 전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정치권, 새해 첫 협치로 지역발전 새 지평

도, 전북 국회의원들과  
올사년 첫 조찬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이 전북자치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첫 협치 회의를 가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올해 첫 조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과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9조2,244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설명하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국제공항, 이차전지 신산업,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은 비수도권 연대를 중심으로 국가균형 발전 모멘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도와 국회의원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2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올해 첫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과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예산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의 추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도정과 정치권 간 협치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2025년 국가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한 추경시 추가 반영,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동시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의 발전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함께 달려온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개정,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원팀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

도당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과 과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 추경 편성과 입법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모두가 원팀이 되어 논의하고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완주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머리 맞대다

윤수봉 도의원, 열린 토론회 열고 교육정책방향 모색  
“상생 기반 마련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완주군에 학교복합시설 설립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윤수봉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돌봄시설 등을 말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완주군에 설립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우석대학교 김철홍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완주군의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윤수봉 의원을 좌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오안 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임경진 교육협력과장, 김난희 완주교육장, 완



주군 서금관 교육정책과장, 이희일 완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주영 완주군학부모협의회회장, 이간희 완주군축색머니회장 등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수봉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멋과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속에서 완주군에 학교복합시설이 설립되는 것과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돼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미래형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서의 학교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적극 대응해야”

염영선 도의원, 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 연구 최종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은 지난 22일 도의회 의원총회 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 및 체계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형성 교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였으며, 염영선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 한정수 의원, 최형열 의원, 강태창 의원, 정종복 의원, 이수진 의원, 황성원 군산대 교수, 김세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이현서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 및 체계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김형성 연구위원은 “도내 대부분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로 인해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불균형으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산업, 인구 등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소멸 위기를 억제하고 골고루 잘살기 위한 역량 배양



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균형발전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 조례안이 필요하며, 기획과 기능, 확장적 균형발전 사업을 고려한 효과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위원은 “오늘 열린 최종보고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완주·전주 통합 추진 위한 범도민대책기구 구성하라”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통합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통합을 위한 범도민대책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대표 이재호)는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범도민대책기구를 설립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대표로 재추대된 이재호 전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은 “급변하는 시국과 함께 어려운 경제 위기까지 겹쳐 있을 때 위로의 말씀부터 드러야 하는데, 오히려 30년 해묵은 과제를 들고 나와서 민망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완주 전주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올해 5월에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완주 군민 투표와 전주시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탄핵정국에 휩쓸려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간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활동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크게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도민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이제부터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도민 협의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전북만이 아닌 전북을 떠나 수도권을 비롯, 전국 경향 각지에서 살고 있는 360만 애향 전북 도민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완주 전주 통합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이어서 임수진 상임집행위원장(전진안군수,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김관영 도지사에게 건의한다”며, “향후 완주 전주 통합 추진 사업과 활동을 당초 5월중 주민투표 일정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정점으로 각 실·국의 핵심 간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주시장에게 건의하며 “향후 완주 전주 통합 추진 사업과 활동을 당초 5월 중 주민투표 예정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정점으로 각 실·국의 핵심 간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해 주도록 요청하며,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에 완주 전주 통합 특례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포함시켜 도 내 14개 시군과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전북 도민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이근재 집행위원장(전 한국 JC특우회 중앙회장, 새한건설 회장)이 나서서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친지들과 더불어 완주 전주 통합을 적극 논의하시고 완주 전주 통합이 이번엔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전북의 최대 현안인 완주 전주 통합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완주를 포함, 전주에 4개 총선 선거구를 두고 안호영 국회의원이 통합에 적극 나서게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현호 청년위원장(전북대 정치외교학과 1학년 학생)은 “결손하게 배우는 자제로 젊은 청년들의 설득에 노력해 완주 전주 통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  
/이만호 기자